



벽화부터 도자기까지... 무등산 성촌은 '문화마을'

무등산 자락 성촌마을에 예술이 스며들었다. 의제 선생의 제자와 차밭을 가꾸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성촌마을은 현재 70여 가구 150여명이 살고 있는데, 노인이 대부분인 도심 속 농촌 같은 곳이다. 희한하게도 밤이면 귀신(?)이 내려온다고 한다. '귀신이 산다'는 것은 사실 여부 이전에, 이야기가 살아 있는 문명의 때가 덜 묻은 곳이라는 뜻이다.

무등현대미술관(관장 정송규)은 지난 3년여 동안 주민과 함께 마을 곳곳에 예술의 색을 입히고 있다. 마을의 낡은 벽에 그림을 그리고, 솜대를 세워 모양새를 갖추더니 지난 6월에는 빈집을 고쳐 다섯 명의 작가에게 작업실을 내줬다.

'성촌예술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윤남

웅(회화)·홍희란(리폼구성)·박일정(도자기)·정경탁(영상)·자크라판 타나티라는(Jakraphun Thanateeranon·태국·영상 퍼포먼스)씨가 이곳에 터를 잡고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멋진 마을을 만들고 있다. 이들 작가가 거거하는 작업실은 원래 오정 자리다. 건물 3동에 방을 25개나 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개업을 하지 못하고 20년간 비워뒀다. 귀신이 나온다면 밤에는 주민들이 집 안으로 지나가지도 않았었다.

몇 차례 주인이 바뀌고 현 주인이 좋은 일 하겠다는 미술관의 뜻에 따라 집을 작가들에게 내줬다.

작가들이 빈집의 거미줄을 거두고 화구를 내려놓자 마을 사람들이 풀러들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작가들에게 그림과 도자기

굽는 법을 배워 마을 벽화를 손수 만들었다. 어린 시절 무등산에서 호랑이를 만났던 할아버지는 못으로 벽을 긁어 호랑이를 새겼고, 윤남옹씨가 이쁘게 색을 입혀줬다. 도로가 뚫리면서 사라져버린 마을 실개천에서 고기를 잡았던 할머니는 붓, 송사리, 자라를 흙으로 빚어 벽에 붙여놓았다.

조병연씨는 마을 정자에서 주민들과 함께 마을공경과 거리를 수목화로 담았고, 강선호씨는 주민들의 초상화를 그려줬다. 모든 집에는 작가들이 만들어준 예술 문패도 내걸렸다. 이 문패에는 집안 내력과 가훈 등이 담겨있다.

아이들은 자크라판 타나티라는씨에게 영상 작품 만드는 법 등을 배우며 어렵게만 느껴졌던 현대 미술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주민과 작가들은 오는 20일 무등현대미술관 앞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담은 '예술 장터'도 연다.

작가들의 소품과 기증작, 주민들이 직접 만든 부채그림·인형·천 가방, 주민들이 재배한 채소와 정성으로 요리한 음식을 판다. 또 광주지역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일본, 필리핀, 중국 음식으로 등산객의 허기를 달래주기로 했다.

정송규 관장은 "예술을 통해 작가와 주민이 소통하기 시작했다. 마을은 더욱 아름답게 변했다"면서 "오래된 곳에 새 건물만 세우려고 하지 말고, 전통을 잘 보존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223-667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무등현대미술관 3년간 마을 곳곳 새단장



윤남웅 등 작가 5명 '예술마을만들기' 참여



작곡가 김현옥의 두번째 '달빛 오딧세이'

'시, 노래되다' 22일 문예회관 소극장

지난해 가을, 달빛 환한 정자 환벽당에는 아름다운 음악이 가득했다. 작곡가 김현옥씨가 가사문학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을 모아 '달빛 오딧세이'라는 이색 음악회를 열었고, 이곳을 찾은 이들은 따뜻한 차 한잔을 함께 나누며 음악에 빠져들었다.

김 씨가 두번째 '달빛 오딧세이'를 준비했다. 오는 22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무대에는 한국 대표 시인들의 작품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시, 노래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낮게 깔리는 바리톤 김대수씨의 목소리로 김지하의 시 '바다 아가네'를 들을 수 있으며 테너 강동명은 강경호 작 '무등산역사'와 천상병 곡 '날개'를 노래한다.

소프라노 길예령씨는 바이올린과 첼로, 피아노 연주로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와 고은의 '세노야'를 선사하며 소프라노 박계씨는 황지우의 '바깥에 대한 반가사유'를 노래한다.

'나 들릴 때'와 '사랑'은 피아노와 드럼이



어우러지며 특히 광주시립무용단 주역으로 활동중인 강병창·구윤지 씨가 몸짓으로 맛을 더한다.

이상록·김현서·윤경록·김도연·김한아·강지민씨 등 클래식과 국악 연주자들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작곡가 김현옥씨는 전남대와 미국 퍼시픽 인터내셔널 대학을 졸업했으며 지금까지 10여차례 작곡발표회를 가졌다.

또 삼호뮤직에서 피아노곡집(10권)을 출간했으며 현재 전남대 외래교수로 활동중이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62-381-007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1일 '청암 전국 고수대회'

2008년 타계한 강진 출신 청암 김성권 선생을 기리는 제2회 청암 고수대회가 21일 오후 5시 광주 서구 빗고골 국악전수관에서 열린다. (사)청암관소리 고법 보존회(이사장 박왕장)가 주최하는 이번 경연은 일반부, 신인·장년부, 학생부, 중모리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일반부 최우수상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 푸짐한 상채와 상금이 수여된다. 경연후에는 흥겨운 축하공연도 준비돼 있다.

청암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관소리고법 보유자로 (사)청암관소리 고법 보존회를 설립, 김대규·박시양·윤진철 등 많은 문학생을 길러내는 등 국악 후진 양성에 힘써왔다. 문의 062-672-557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현암 이을호 탄생 100주년 학술대회

내일 전남대 인문대 기념실 학문·업적 다룬 논문집 발간



국내 최고의 다산학 연구자로 민족문화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현암 이을호(1910~1998년·사진)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논문집 발간과 학술대회 등 선생의 학문과 업적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한국공자학회(회장 이희재)는 이을호 선생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최근 '현암 이을호 연구-한국사상 연구의 현대적 기반'이라는 논문집을 발간했다.

1부는 선생의 생애와 학문적 위상으로 근대 동양철학 연구사에 남긴 공헌을, 2부는 시대적 인식과 의학연구를, 3부는 자주성의 자각과 경전 연구, 4부는 다산학과 실학 연구의 특징, 5부는 선생이 이룩한 한국문화의 정통성과 한국사상의 현대적 전환을 조명했다.

특히 이번 논문집에는 선생이 학생시절부터 항일정신을 키운 것과 사업을 하며 꾸준히 남모르게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보낸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영광 태생인 선생은 한약방을 운영하며 항일운동에 참여,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며 한국화에 관심을 가진 뒤 1955년 전남대 철학과 교수로 임용돼 20여 년을 재직하면서 초창기 한국철학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생은 교육·연구사업에도 남다른 업적을 남겼다. 광복후에는 사재를 회사채 영광에 민립 남녀중학교를 세우고 초대 교장으로

로 부임했다가, 1948년에는 광주의과대학 부속병원 약국장에 취임했다. 이후 동양철학 연구에 전념해 강행의 '간양록'을 번역했으며 정년 퇴임 후에는 국립광주박물관장에 취임하고 사회화운동에 힘썼다.

한국공자학회는 오는 20일 오전 전남대 인문대학 이을호 기념강의실에서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주관으로 선생의 학문적 업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열고, 오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이번 논문집 발간 출판 기념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오종일(전주대 명예교수)씨와 윤사순(고려대 명예교수)가 각각 '현암 이을호 삶과 학문적 업적'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전통문화학교 최영성씨는 '한국철학 연구사에서 본 이을호의 업적과 그 학문적 가치'를 내용으로 발표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내일 광주청소년교향악단 정기연주회

광주청소년교향악단 제3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20일 오후 7시30분 빗고골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상임지휘자 김연주(초당대 교수·사진)씨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서곡, 모차르트의 '교향곡 35번 하프너' 등을 들려준다.

특히 첼로의 배상철(목포대 교수), 소프라노 조수현(광산대 교수), 플루티스트 이승호(서울종합예술학교 교수)씨 등 정상급 연주자들이 청소년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춰

비발디의 '두대의 첼로를 위한 협주곡 G단조', 차마르시의 '2대의 플루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등을 선사한다.

지난 2008년 창단한 광주청소년교향악단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60여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있다. 문의 010-5648-654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뮤지컬 MAMMA MIA!

12월 3~5일 광주문예회관 문의 062-220-0541·1588-0766



www.geumssoojang.com

이번 모임은 어디가 좋을까?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가 여러분의 가까이 있습니다.

2인실부터 대형 연회장까지 다양한 접객실과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빔프로젝트, 음향 설비 완비 상견례, 회갑, 고회연 등 가족모임과 회식, 설명회 등 각종 모임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여름 보양 메뉴 : 굴비정식, 삼계탕, 장어정식

금수장관광호텔 예약 계림동 홀플러스 건너편 아리랑하우스 문의 525-2111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영화와 함께!!

<p>상무점</p> <p>1관 불랑남녀 (15세)</p> <p>2관 렛미인 (15세)</p> <p>3관 두여자 (18세)</p> <p>4관 부당거래 (18세)</p> <p>5관 소우3D (18세)</p> <p>6관 소셜네트워크 (15세)</p> <p>7관 레드 (15세)/언스토퍼블 (12세)</p> <p>8관 페스티벌 (18세)</p> <p>9관 초능력자 (15세)</p> <p>10관 초능력자 (15세)</p>	<p>항토시랑! 영화시랑! 매일 심야상영 / 호남최대주차장 / www.cinus.co.kr</p> <p>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p>	<p>하남점</p> <p>1관 초능력자 (15세)</p> <p>2관 부당거래 (18세)</p> <p>3관 불랑남녀 (15세)</p> <p>4관 가디언의전선 (전세)/쏘우 (18세)</p> <p>5관 페스티벌 (18세)</p> <p>6관 언스토퍼블 (12세)</p> <p>7관 두여자 (18세)</p> <p>8관 렛미인 (15세)</p> <p>9관 소셜네트워크 (15세)</p> <p>10관 초능력자 (15세)</p>	<p>MEGABOX</p> <p>최고급관</p> <p>M관 초능력자 (15세)</p> <p>2관 부당거래 (18세)</p> <p>3관 렛미인 (15세)</p> <p>4관 소셜네트워크 (15세)</p> <p>5관 소우3D (18세)</p> <p>6관 두여자 (18세)</p> <p>7관 페스티벌 (18세)</p> <p>8관 불랑남녀 (15세)</p> <p>9관 초능력자 (15세)</p> <p>영원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시정상요금 부과</p>	<p>CINUS</p> <p>1관 초능력자 (15세)</p> <p>2관 부당거래 (18세)</p> <p>3관 렛미인 (15세) / 초능력자 (15세)</p> <p>4관 소우3D (18세) / 불랑남녀 (15세)</p> <p>5관 언스토퍼블 (12세) / 레드 (15세)</p> <p>6관 페스티벌 (18세)</p> <p>7관 소셜네트워크 (15세)</p> <p>색깔있는 영화상객 • www.cinus.co.kr</p> <p>씨너스전대3D(4K)상영!!</p>
---	---	--	--	--